

# Albemarle, 촉매시장 선두권 진입

## Akzo의 촉매사업 인수로 ... 촉매 · 폴리머 · 정밀화학 3부문으로 재편

Albemarle는 Akzo Nobel의 정제촉매 사업을 6억2500만유로(7억4340만달러)에 인수키로 계약했다.

폴리올레핀 촉매 특화기업이던 Albemarle는 Akzo의 정제촉매 인수에 따라 촉매시장 전 부문에 걸쳐 선두주자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.

인수사업의 매출은 4200만달러로 FCC(Fluidized Catalyst Cracking)와 자동차 연료의 질을 높일 때 쓰이는 Hydroprocessing Catalyst, 이성질화 및 알킬화 촉매를 생산하고 있다. 기존 Albemarle의 폴리우레탄 촉매 매출은 8300만달러 수준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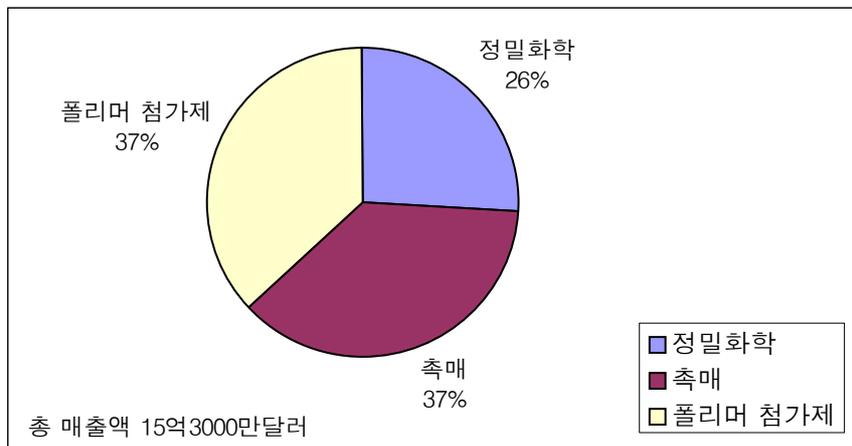
Albemarle는 인수이후 매출이 11억달러에서 15억3000달러로 늘어나고, 세금 및 이자 지급전 이익(EBITDA)도 1억7700만달러에서 2억6100만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Akzo의 촉매사업은 세금 및 이자지급 전 이익률이 20%에 달하고 있어 Albemarle도 전체적으로 세금·이자 지급전 이익률이 17%로 약 1%p 상승할 전망이다.

Albemarle는 비용 측면에서도 연간 500만-1000만달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, Akzo의 정제촉매 사업 인수시 7억달러의 용자를 받아 총 미해결 부채가 8억500만달러로 증가하게 된다. 인수액은 지난 12개월간 EBITA의 약 8.9배로 최근 화학사업 거래에서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.

Albemarle은 현재 정밀화학과 폴리올레핀 촉매를 포함한 폴리머의 2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, 기존의 촉매 생산부문과 Akzo에서 인수한 촉매 사업부문을 합쳐 총 3개 사업부로 개편할 방침이다.

### Albemarle의 매출 비중(2003)



† Akzo의 정제촉매 사업 인수 기준

자료) Albemarle

Albemarle는 연소 억제제를 포함한 폴리머 첨가물 사업부도 개편할 예정이며, 개편 후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촉매부문과 폴리머 첨가물 사업부가 각각 37%, 정밀화학 부문은 26%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Albemarle는 Akzo의 촉매사업 인수를 통해 연간 20억달러의 정제촉매 시장에서 W.R Grace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세계 촉매 시장은 Akzo가 29%를 차지하고 있으며 Grace 역시 29%의 점유율을, Engelhard와 Royal Dutch/Shell의 자매사인 Criterion이 각각 12%의 점유율을 가보유하고 있다

Akzo는 9억달러 Hydroprocessing 촉매 시장에서 점유율 32%로 Criterion과 Grace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, 시장규모는 연평균 4-5% 성장하고 있다.

Akzo는 11억달러의 FCC 시장에서도 27%의 점유율을 차지해, 35%의 Grace에 이어 2위에 올라 있으며 특히 Heavy Heed용 촉매에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3위는 Engelhard로 FCC 시장에서 20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FCC 촉매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1-3% 수준이다.

Akzo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미국 텍사스주 Pasadena에서 FCC와 Hydroprocessing 촉매를 생산하는 한편, 브라질과 일본에서는 50%의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를 통해 촉매를 생산하고 있다.

또 프랑스 La Voulte 소재 촉매 재생기업인 Eurecat의 지분도 50% 소유하고 있는데, Eurecat은 미국, 사우디아라비아, 이탈리아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다.

<화학저널 2004/07/02>